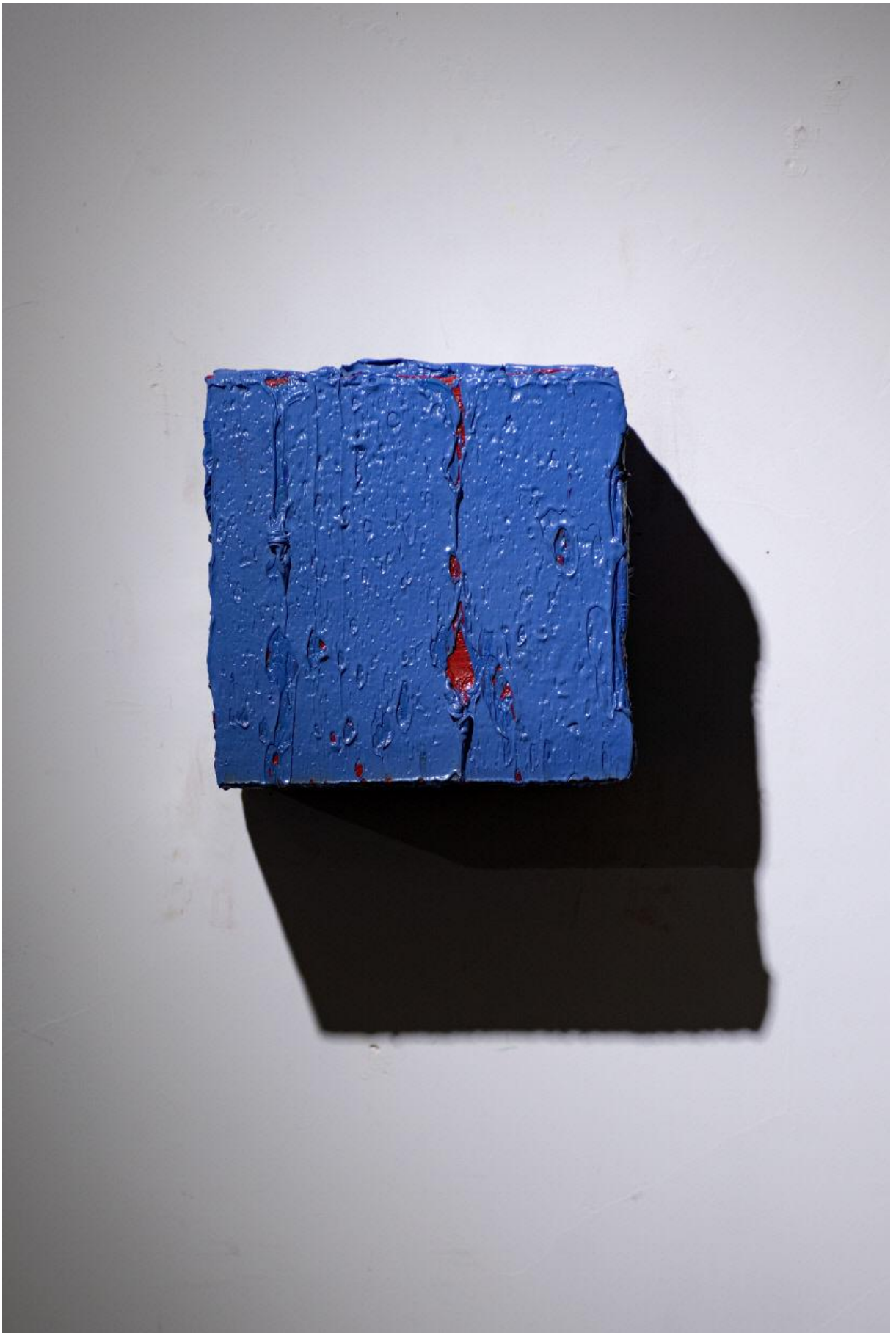

4월 오픈 '갤러리팔조 대구'...개관전 'Map of the Soul' 5월8일 까지

박주희 | 입력 2022-05-02 발행일 2022-05-03 제14면 수정 2022-05-02 09:36



르네 리트마이어 'Portrait of Callum Innes-Edinburgh October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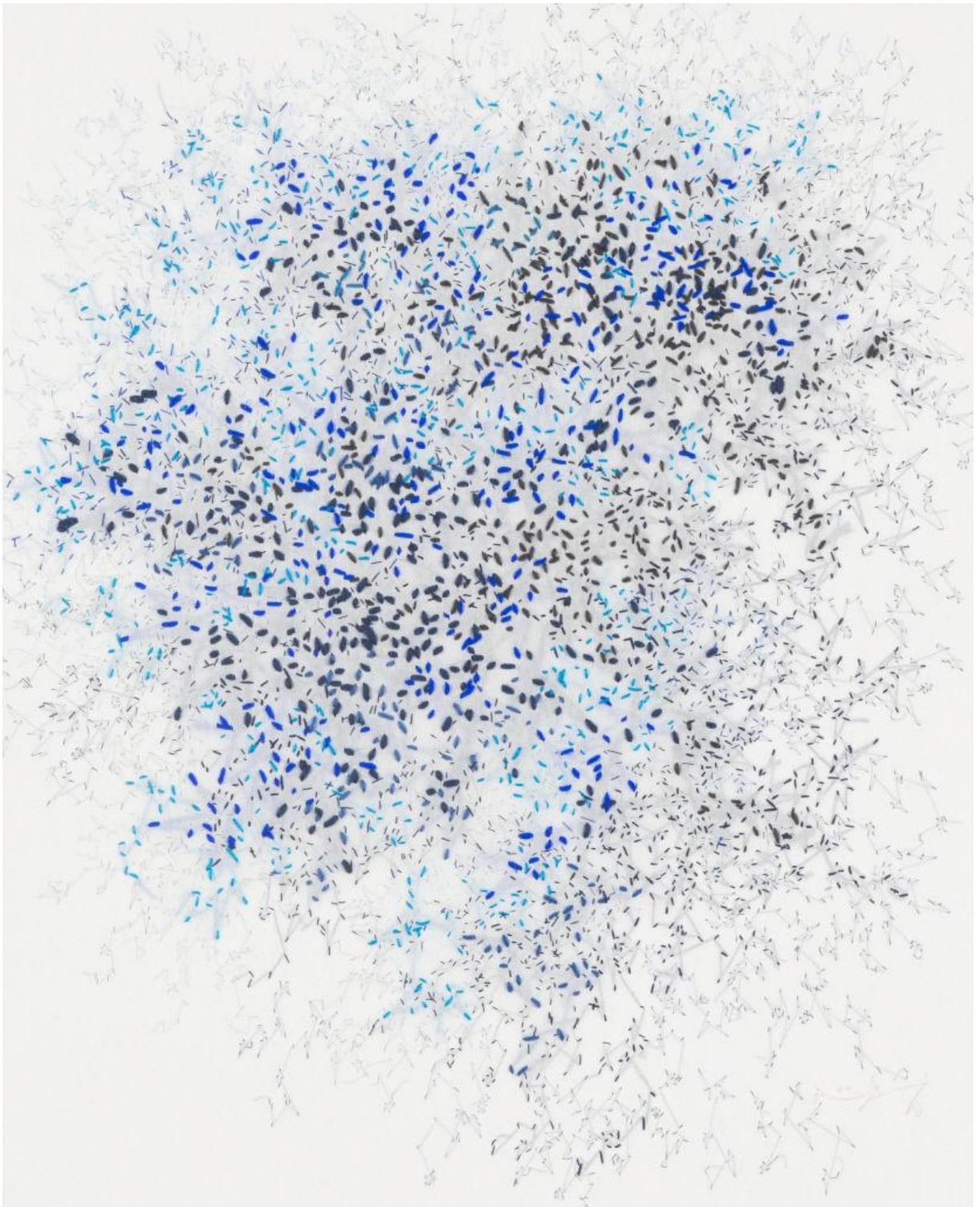
2010년 청도에서 개관한 '갤러리팔조'가 지난 2일 대구에 갤러리를 추가 오픈하면서, 대구 개관전 'Map of the Soul'로 첫 인사를 건넨다.

'갤러리팔조'는 청도에서 지난 10여 년간 동시대의 현대미술의 높은 가치를 지향하고 자신만의 독특하고 주관적인 표현을 하는 덜 알려진 작가를 소개하는 자연과 함께 하는 예술 공간으로 사랑받아 왔다. 특히 세계적으로 덜 알려진 한국의 작가를 발굴해 한국은 물론 해외에 소개하는 동시에, 아직 한국에 소개되지 않은 해외 작가와 작품을 소개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갤러리팔조의 색깔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청도에서는 물리적 거리감이나 공간 구조상의 한계가 있어, 갤러리 접근성을 높여 미술 애호가들과 보다 가깝게 소통하면서 활동의 폭을 넓혀가고자 대구 공간을 추가로 열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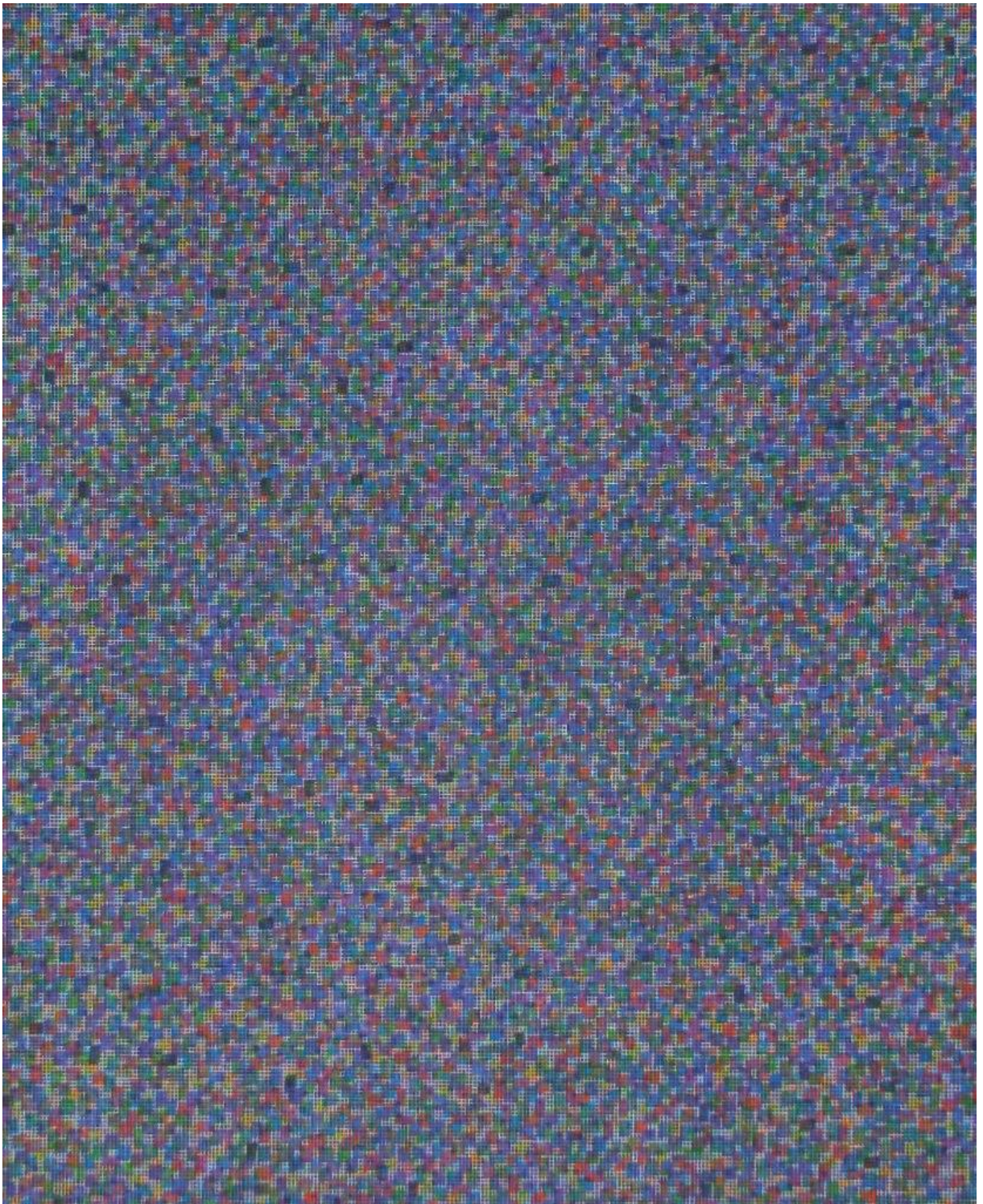
갤러리팔조 대구의 첫 전시회인 'Map of the Soul'은 각자 자신의 영혼의 지도를 찾아가는 작가 4명(르네 리트마이어, 심향, 정병현, 최정윤)의 그룹전으로 기획됐으며, 다음 달 8일까지 열린다.

한국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르네 리트마이어는 주변 환경에 대한 자신과 시간-공간-존재에 대한 인식의 지적인 표현을 하는 네덜란드 출신 작가다. 1994년부터 현재까지 일본, 독일, 캐나다,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미국 등지에서 여행 겸 장기 체류를 하며 작품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전에 구상 작업을 했던 리트마이어는 1997년부터 프랑스 남부에서 미국 미니멀아트와 이른바 새로운 추상화를 알게 된 것에 자극을 받아 자신만의 미술 형태인 박스(Boxes)를 발전시켰다. 상자는 입체 오브젝터로, 대개 5면에 칠해져 있고 여러 부분으로 구성된 가변적인 설치로 벽이나 바닥에 설치된다. 작가는 존재와 시간-공간 등의 인식에 대한 주관적이고 지적인 표현을 박스에 담는다.



심향 'Starfield-1715'

2019년 별세한 심향은 한지와 여러 가지 실을 매개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다층 기법을 사용해 존재의 가치를 형상화한 작가다. 이 기법으로 탄생한 심향의 '스타필드 시리즈'는 존재의 가치와 각기 다른 존재 사이의 축적된 시간과 관계를 형상화하며 평면을 새로운 형태의 표현으로 확장한다. 특히 여러 겹의 레이어(층)에 의해 가리워짐(hidden)은 작업의 중요한 요소로 작가만의 독창성을 보여준다.



정병현 'No Longer Myself - 22001'

정병현은 인간의 불완전성을 조형적인 언어로 시각화하고 있다. 작가는 한지에 안료를 여러 번 칠하고 덮기를 반복한 후 타투 바늘로 종이를 뜯어내는 독창적인 기법으로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그는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다(No Longer Myself)'라는 작품에서 인간의 불완전성을 증명하기 위해 화면에 규칙적, 불규칙적인 패턴을 입혀 조형적인 언어로 표현했다. 이는 삶의 완전성에 대한 갈망보다 오히려 불완전성에서 오는 갈등을 받아들인 형태다.



최정윤 'The flesh of passage'

입체 작가인 최정윤은 인간 욕망의 허무한 관념적 실체를 시각적 대상으로 언어화하고 있다. 예로부터 동양에서 권력의 상징이자 인간 욕망의 역사적 실체였던 검(劍)에서 본질적 속성을 재해석하는 과정에 주력해 온 최정윤은 이를 소금, 꽃으로 확장시켜 왔다.

김중희 갤러리팔조 대표는 "대구 개관전에 초대된 4명은 갤러리팔조와 오래 관계를 이어온 작가들로, 각 작가마다 자존감·존재 등에 진지하다. 12년간 갤러리를 해 오면서 그룹전을 한 적이 별로 없는데, 이번에는 오피셜한 개관전이라 각자의 독창적인 영혼으로 결코 간단치 않은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4명의 작품을 함께 내걸면서 갤러리팔조도 독창적인 영혼의 지도를 그려갈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긴다"고 설명했다. 월요일 휴관. (053)781-6802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프린트

취소